

‘2011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기술상 수상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서 주관하는 ‘2011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가 2010년 한국업반공학회 기술상 수상에 이어, 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개발을 통하여 터널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상을 수상했다.

본 학술발표회는 터널 및 지하공간 분야에 대한 기술 공유 및 전파를 목적으로 지난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국제터널학회 회장 이인모 교수,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태식 교수를 비롯하여 대학, 연구소, 시공사 및 설계사 등 터널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도심지 및 근접 터널거동, 환기 및 방재, 시공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 시공 및 설계 사례, 공법 등이 발표됐다. 본 수상을 통하여 터널 및 지하공간 분야에 대한 당사의 기술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기술상은 국내외에서 기술 활동을 통하여 터널기술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 상벌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매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시상하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

국내 주거문화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뢰받는 건설 기업을 발굴 및 전파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2011 대한민국 주거서비스 대상’ 시상식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본 시상식에서 우리 회사 김포한강신도시 쌍용예가 현

장이 부문별 최우수상을 받았다.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후원한 이날 시상식에는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 회장, 이백규 머니투데이 부사장 등이 참석해 수상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상을 통해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수요자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공동도급사 : 계룡건설산업(주), 삼보조건, 대흥조건, 삼덕건설)이 지난 4월 26일 조달청이 발주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를 315억 6,090만 원(우리 지분 40%, 126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탐평리 일원에 조정경기장 조성에 따른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소방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0개월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싱가포르 국립실내체육관, 크란지 경마장, 올림픽 체조경기장, 전주월드컵 경기장 등 스포츠·레저시설 분야에 다양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2009년 9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공동도급사 : 대림산업, 고려개발, 경남기업, KCC건설, 동우개발)이 지난 4월 2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를 2,588억 원(우리 지분 15%, 388억 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시 중구 봉래동부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까지 신경의선 수색역과 공항철도 고양역을 잇는 연결선 및 서울역 지하 연결통로 신설과 검암역, 인천공항역의 공항철도 개량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이다.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수주

우리 회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공동도급사 : 현대엠코(주))이 지난 5월 9일 조달청이 발주한 한글박물관 건립공사를 153억 3,814만 3,181원(우리 지분 51%, 78억 4,453만 227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외 5필지 일원에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의 전시시설을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2개월이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이번 수주를 통해 전시시설 실적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주되는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설계자,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사프디 초청 강연



인간의 상상과 건축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작이자 '21세기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며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로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Marina Bay Sands Hotel)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모셰 사프디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우리 회사 김석준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석준 회장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프디의 방한 기간 동안 주요 일정을 함께하며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한 기간중 '메가 스케일, 대규모 건축의 복잡성과 질서(Megascale, Order and Complexity)'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국내 건축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설계 당시 에피소드와 자신의 건축 신념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어 모셰 사프디는 자신의 설계를 믿고 실현해준 쌍용건설의 기술력과 노고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기자간담회를 마친 모셰 사프디는 삼성 리움 미술관을 잠시 둘러보고 우리 회사가 시공중인 화현동 남산 스테이트 타워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방한 일정을 마쳤다.

한편 모셰 사프디는 지난 1967년 '해비타트 67(Habitat 67)'이라는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 박람회 주거 계획으로 젊은 시절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은 건축가로, 조립식 공동주택단지인 해비타트 67은 2009년에 캐나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완공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入'자 모양의 호텔 3개동 위에 중형차 43,000대 무게인 배 모양의 스카이파크(Sky Park)가 들어서 있는 독특한 외관으로 설계돼 싱가포르의 새로운 명소가 됐다.

e-MBR 하폐수 초고도처리공법 환경신기술 지정



'막분리조 미세·거대기포 포기 방식과 과포기 DO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하수고도처리기술(e-MBR)'이라는 기술이 지난 5월 9일 환경부로부터 신기술 제337호로 지정받았다. 이 기술은 혐기조와 2단탈질 방식의 MBR 반응조 구성에 있어 슬러지 반송에 의한

무산소조로의 용존산소 유입, 슬러지 반송에 의한 혐기조로의 용존산소 및 질산성질소의 유입을 억제시켜 수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환경신기술 지정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턴키 입찰시 신기술 가점에 따른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PQ 기술능력 평가시 신기술 보유·활용 실적부문에서 배점을 상향 취득하게 됐다. 향후 e-MBR 환경신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추가 환경신기술 확보에도 힘쓸 것이며, 하수처리 시설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신기술 활용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신기술은 (주)에코니티와 함께 개발했으며, 보호기간은 2011년 5월 9일부터 3년간이다.

'제7회 건설안전포럼 및 정기총회' 참가 및 시공사례 발표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 확산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제7회 건설안전포럼 및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3일 서울시 논현동 대림주택문화관에서 개최됐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가 참석했으며, 이훈재 현장소장(경의선 2공구)이 'KTX운행선근접 대규모 지반 굴착 기술 및 안전시공 사례'란 주제의 시공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한편 건설안전포럼 및 정기총회는 산·학·연 공동으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내 발주처와 시공사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관계자, 대학교수 등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건설안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5회 건설기술연구 우수사례 발표회' 참가 및 기술연구 사례 발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최근 수행한 우수 건설기술 연구사례를 널리 전파·보급함으로써 기술연구 인력의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내 건설업계의 R&D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건설기술연구 우수사례 발표회'가 지난 5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가 참석했으며, 토목기술부 이송헌 부장이 'BIM 기술을 통한 공사관리 통합시스템'에 대하여 발표함으로써 시공사의 BIM 활용방안 제시와 더불어 타사에 비해 월등한 BIM 활용도를 인정받았다.

한편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연구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토목·건축·환경 분야의 기술연구 우수사례 총 13건이 발표됐다.



'한국BIM학회' 참가 및 BIM 우수사례 발표

한국BIM학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2011 정기학술대회'가 지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건축, 사회기반시설, 토목, 스마트 도시, 에너지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BIM의 적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회사 토목사업본부 조현 상무, 토목기술부 이기환 부장 외 2인이 호남고속철도 4-2공구에 적용된 BIM 공사관리 통합시스템을 소개한 '3차원 가상현실을 통한 웹기반 통합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목기술부 이송헌 부장이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BIM 선두주자로서 우리 회사의 대외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우리 회사는 국내 최초로 BIM 공사관리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호남고속철도 4-2공구 이외에도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5공구, 싱가포르 C921, 싱가포르 MCE 482 등 당사 국내외 현장에 적용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BIM 공사관리 통합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신규 아이템을 발굴을 통해 BIM 적용현장을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BIM학회는 최근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화두가 되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10월에 발족된 학회이다. S